

* 院項橋改建碑

(前 面)

院項橋改建碑

光武四年庚子夏大雨此橋頽圯
道人不得行李侯範善憂之捐
後於是一邑之民合力鳩財此橋
民皆悅之立石頌德曰李侯橋
庚子十月二十日立。

(後 面)

施主勸善記

三百兩	官家
一千五百五十兩	金浦
四百兩	華山
三百兩	論山
一百兩	城東
二百兩	行人收
一百兩	邑內
一百兩	黃山
三百兩	右支杜
一百兩	左支杜
五十兩	彩雲
三十兩	大鳥谷
三百三十兩	各處
一百三十兩	本面 鄭正淳
藍董	朴俊植。

* 원향교 개건비

(비 문)

광무 4년 경자년 여름에 큰 장마비가 내려 이 다리가 낡아서 무너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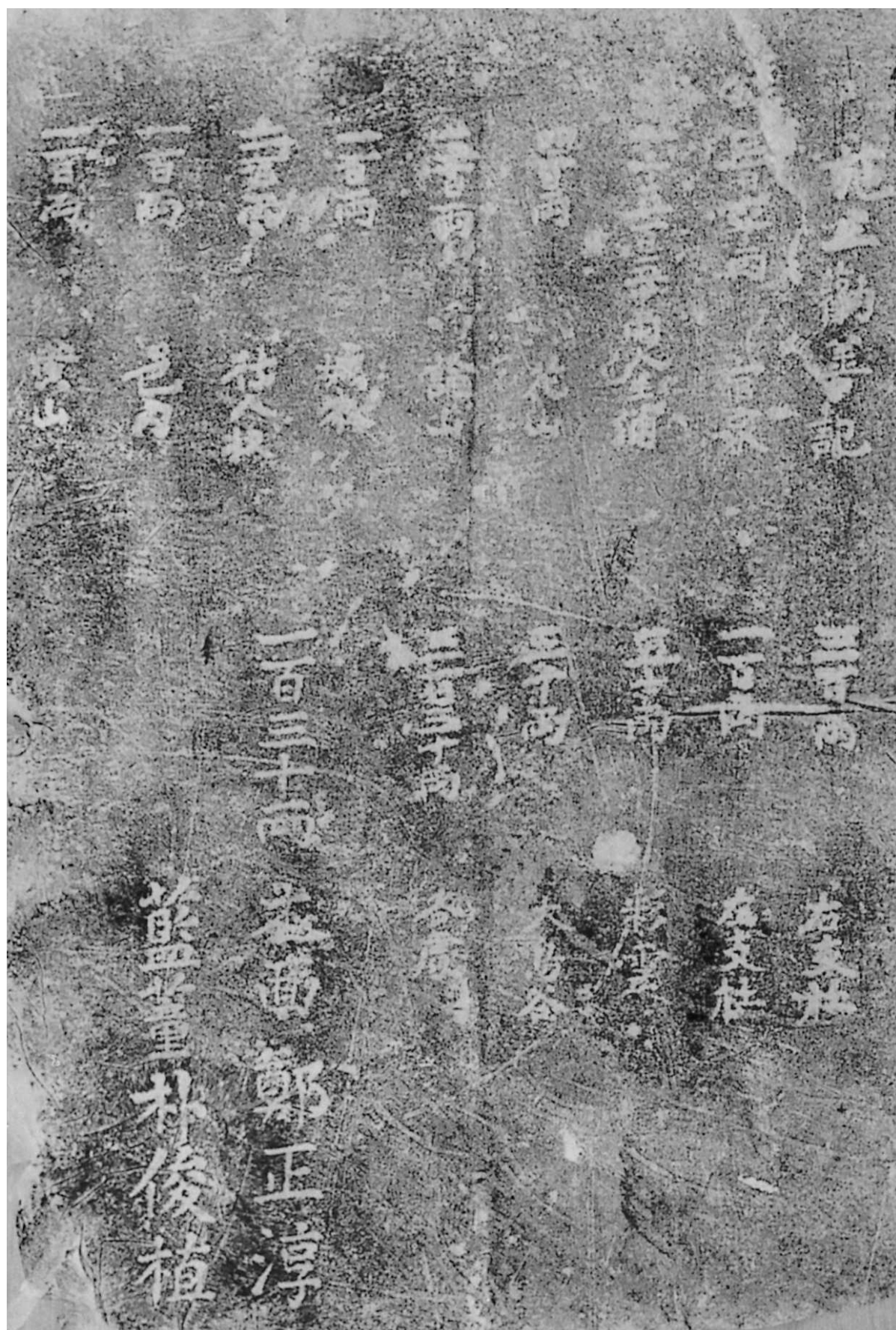
사람들이 다닐 수 없게 되었다. 이 군수 범선이 이것을 걱정하여 의연금을

이에, 고을 백성들이 힘을 모아 자금을 마련하여, 이 다리를 백성들이 모두 기뻐하여 비석을 세우고 그 덕을 칭송하여 말하기를, 「이후교」라고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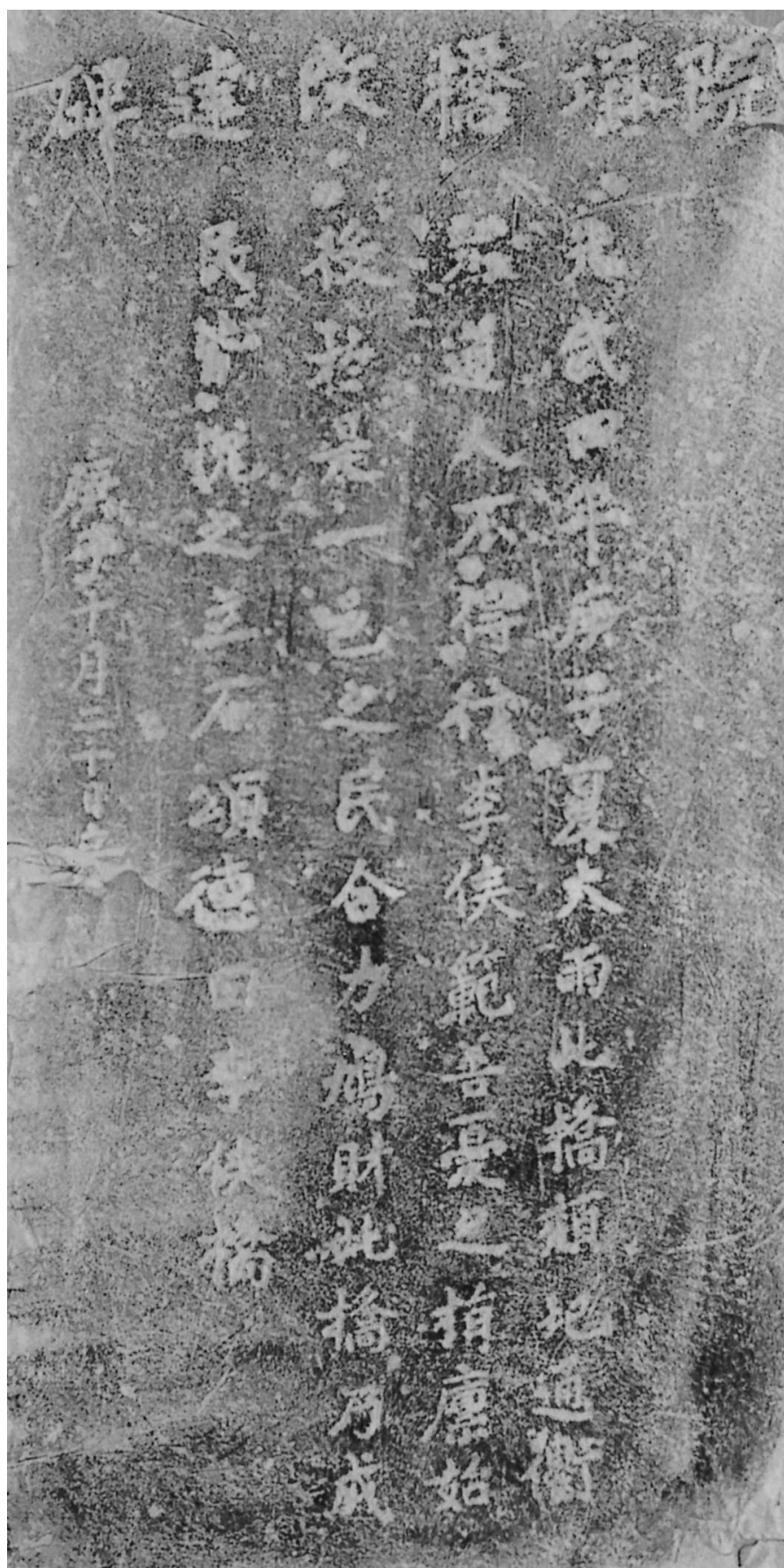
경자년 10월 20일에 세우다.

시주 권선기

360	관가
1550	김포
400	화산
300	논산
100	성동
200	행인에게 거출한것.
100	읍내
100	황산
300	우지두
100	좌지두
50	채운
30	대조곡
330	각처
130	본면 정정순
남동	박준식



원향교 개건비. 후면



원향교 개건비. 전면



원향교 개건비



원향교

19. 원향교개건비

소재지 | 논산시 채운면 용화리

연월일 | 서기 1900년(순종 4년, 경자)

비신 높이 | 120 cm

폭 | 53 cm

두께 | 21 cm

자 경 | 4 cm

석 질 | 화강암

1900년 큰비로 돌다리가 파괴되어 이범선이 주선하여 인근 주민들이 모금을 하고 다리를 새로 놓아 일명 이후교(李侯橋)라고 불렀다. 지금도 천변에 돌다리가 홍예 모양으로 일부 세워져 있다.

원향교비는 다리를 중수한 내역을 기록한 것으로 원두 비신으로 되어 있다.

* 論山石橋重修碑(2)

(頭 書)

論山石橋重修碑

(碑 文)

都監董五衛將 李景三

掌錢 有司 金顯奎 先達 金泰賢

都化主 李東秀 千晟濬 金完福

李寅植 李基根 朴聖老

崔哲宗 沈魯學 金履貞

金錫基 金仁喜 許 榮

梁廷學 曹錫敏 李仲執

趙和錫

書記 文景殷

檢察 姜世玉 鄭希容 金允信

片手 李化瑞

(後 面)

橋毀於甲寅洪濤蕩析也橋成於丁巳輿論從順也橋毀也賁舟橫釣病涉也久橋成也湖西南行旅無滯水東西市塵二百戶朝夕由之而不知其恩孰使授方任幹省費董工永樹恩於津梁也前太守徐侯曾輔也頌曰邑稱恩津名言在茲徐侯之恩問津者知

咸豐 八年戊午五月 日謹記。

* 논산석교중수비 (2)

(두 서)

논산석교중수비

(전 면)

도감동오위장 이경삼

장전유사 김현규 선달 전태현

도화주 이동수 천성준 김완복 이인식

이기근 박노성 최철중 심노학

김이정 김석기 김인희 허영

양정학 조석민 이종집 조화석

서기 문경은

검찰 강세옥 정희용 김환진

편수 이화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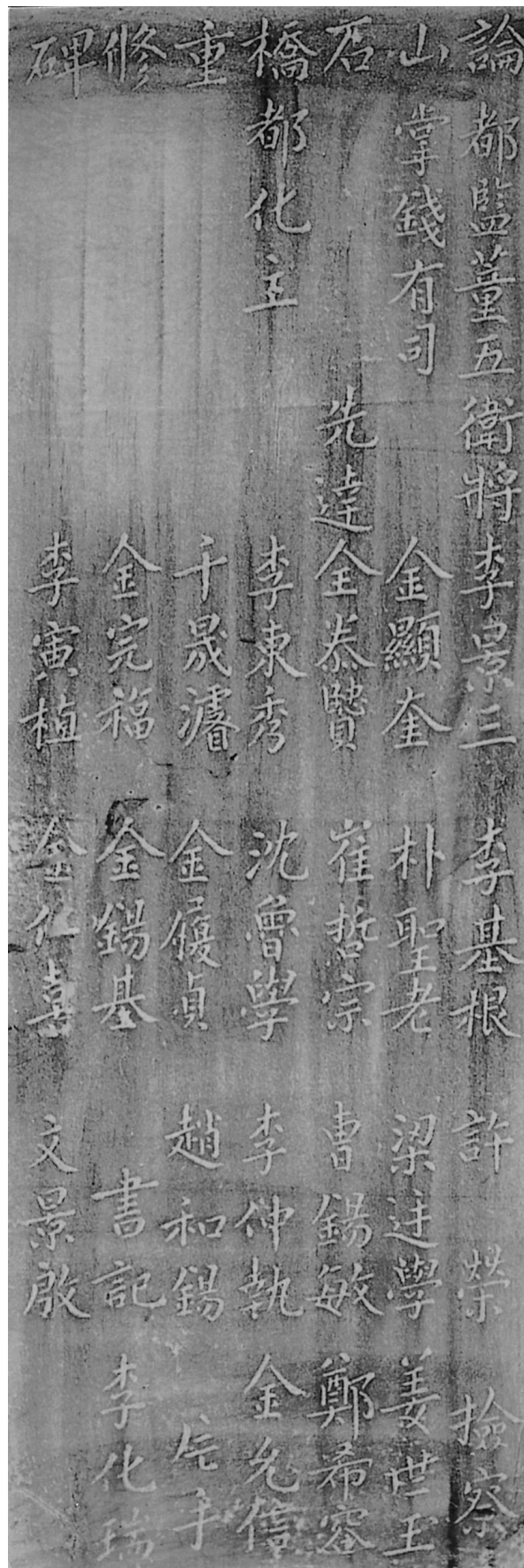
(후 면)

다리가 망가진 것은 갑인년에 큰 홍수가 넘쳐서 부서지고 다리를 완성시킨 것은 정사년에 여론에 의하여 이룩한 것이다. 다리가 허물어지자 배를 세내어 다니고, 나무를 걸쳐놓아 불편하게 건너 다니기를 오래도록 하였다. 다리를 놓으니 호서와 호남의 여행객들이 물에 막히지 아니하고 다니게 되었으며 동서의 시장 상인들의 이백 집들이 아침 저녁으로 여기를 왕래하지만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있다. 누가 그 일을 맡았는가. 바야흐로 경비를 절약하고 공사를 감득해서 강에 다리를 놓아 은혜를 베푸는 전 태수 서증보 군수이다. 칭송하기를 「고을 이름이 은진이라 하였으니 그

이름이 여기에 있도다. 서군수의 은혜를 물을 건너는 이는 아느냐。」

합풍 8년 무오 5월 일에 삼가 기록한다.

橋毀於甲寅洪濤蕩折也橋成於丁巳輿論滋頓也
 橋毀也費舟楫病涉也久橋成也湖西南行旅無
 滯水東西市廛茂官戶朝夕由之而不知其恩孰使
 授方任幹省費董工永樹恩於津梁也前太守徐侯
 曾輔也頌曰邑稱恩津名言在茲徐侯之恩問津者
 知
 咸豐八年戊午五月日謹記



논산 석교 중수비, 전면(2)



논산 석교 중수비(2)

18. 논산석교중수비(2)

소재지 | 논산시 대교동

연월일 | 서기 1858년(철종 9년, 무오)

비신 높이 | 135cm

폭 | 45cm

두께 | 20cm

자경 | 4.5cm

석질 | 화강암

1854년에 큰 홍수로 석교가 파손되어 모금을 하여 다리를 중수하고 그 내력을 기록한 비이다. 대교동 대교 천변에 세워져 있었는데 근년 다리와 외곽도로 건설로 소재가 불명하다.

* 論山石橋重修碑(1)

(頭 書)

論山石橋重修碑

(碑 文)

都化主 李商膺 李景三

都監董 方有敏 許 濤 全泰賢

化主兼監董 金鎮玉 朴鎮性 朴聖煥

文景孝 鄭希容 白快孫

金光輔 朴東榮

金厚根 曹致榮

掌錢有司 金哲聲錢文伍拾兩

大施主 僉使金尙潤錢文伍拾兩金浦

施主錢 半月里五百玖拾伍兩

場垈里伍百玖拾兩

魯論山伍百參拾貳兩

各處施主錢合貳千五 . . .

已上都合錢貳千 . . .

合用下參千五百 . . .

不足參百 . . .

道光二十六年丙午秋七月 日立

扁手 安永喆 咸在福

金光裕 孔履元

文處恒 李錫基

李東秀 姜基文

* 논산석교중수비(1)

(두 서)

논산석교중수비

(비 문)

도화주

이상응 이경삼

도감동

방유민 허업 진태현

화주검감동

김진옥 박진성 박성환 김광유 문처항 이동수

문경호 정희용 백쾌손 공이원 이석기 강기문

김광보 박동영

장전유사

김후근 조치영

대시주

김철성-전문 오십냥 첨사 김상윤-전문 오십냥, 김포

시주전

반월리-일백구십오냥

장대리-일백구십냥

노논산-일백삼십이냥

각처시주전합-이천 . . .

이상도합전-이천 . . .

사용된 돈의 합계-삼천오백냥

부족금-삼백 . . .

도광 26년 병오 가을 7월 일 세음

편수 안영철 함재복。



논산 석교 중수비(1)



논산 석교 중수비(1)

17. 논산석교중수비(1)

소재지 : 논산시 대교리

연월일 : 서기 1846년(헌종 12년, 병오)

비신 높이 : 135cm

폭 : 4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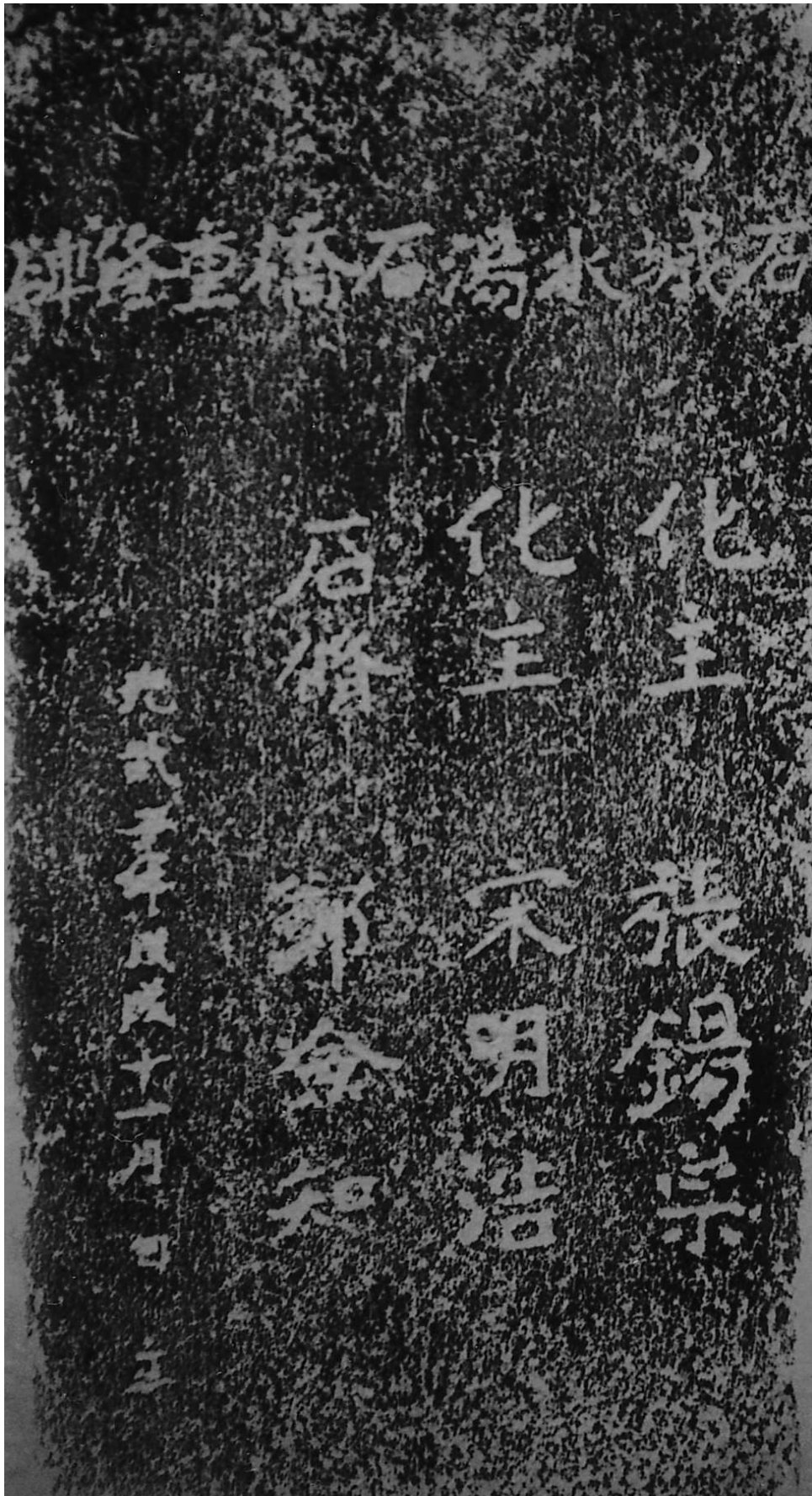
두께 : 22cm

자경 : 2.7cm

예액 : 6cm

석질 : 화강암

논산석교중수비는 화강암 원두 비신에 중수에 참가한 공사자들과 시주내용을 적고 있다. 대교동 대교 천변에 세워져 있었는데, 다리 개축과 외곽도로 건설로 소재가 불명해졌다.



석성 수탕교 중수비(3)



수탕교 중수비(3)

16. 석성수탕교중수비(3)

소재지 : 논산시 성동면 원북2리 장독골

연월일 : 서기 1898년(고종 35년, 무술)

비신 높이 : 80 cm

폭 : 37 cm

두께 : 17 cm

자경 : 5 cm

석질 : 화강암

이 수탕석교중수비는 가장 최근의 비로 홍수에 파손된 부분을 중수하고 세운 비이다.

이상의 세개이 석교비 외에 두 개가 더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미루어봐도 오랜 세월동안 수차례의 중수와 복구가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논산 지역과 부여 지역을 잇는 큰 길의 석교로 교통요로이었음이 이들 석교비를 통하여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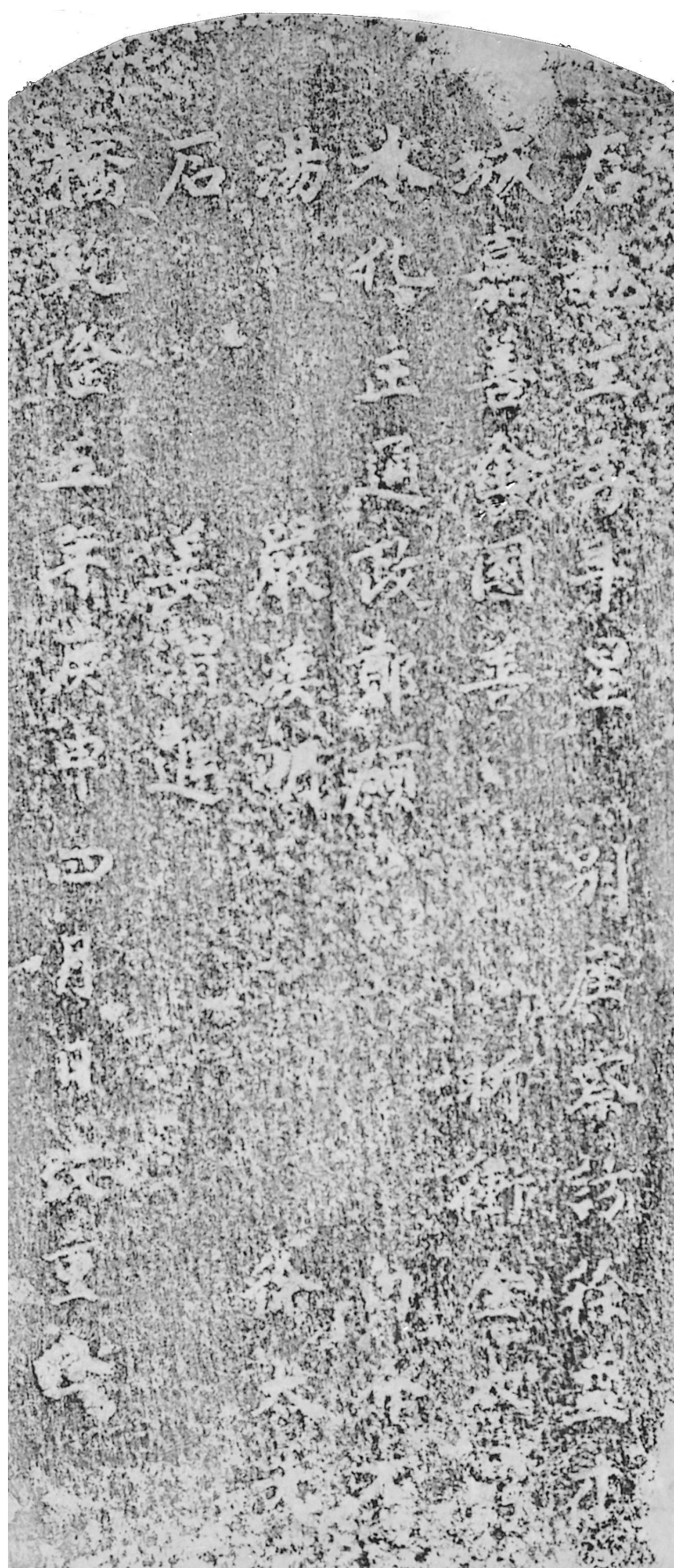
* 石城水湯石橋重修碑

化主 張錫宗

化主 宋明浩

石修 鄭僉知

光武二年 戊戌十一月 日立



석성수탕 석교비



수탕교비(2)

15. 석성수탕석교비(2)

소재지 : 논산시 성동면 원북2리, 장독골

연월일 : 서기 1740년(영조 16년, 경신)

비신 높이 : 90cm,

폭 : 41cm,

두께 : 21cm

자경 : 3.6cm

석질 : 화강암

옛날의 큰 길이 지금은 변하여 다니지 않게 되자 자연히 냇물에 놓였던 석교들이 방치되고 파손되었으며, 홍수 등으로 일실되는 수가 많았다. 석성수탕교도 예외는 아니었다. 다리 석재가 산실되는 것을 모아 석비와 함께 부적 충곡리 계백장군 묘역에 옮겨 놓았다가, 현지에 복원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수탕교가 놓였던 자리는 부여 석성비당리와 논산 성동원북리 사이의 석성천으로, 두 사이를 잇는 돌다리가 놓였었다. 1740년에 다리를 중수하고 화강암 원두 비신에 공사 내역을 새겨 놓았다.

* 石城 水湯橋碑

(題額)

石城水湯石橋

(碑文)

施主 李斗星

嘉善 金國善

化主 通政 鄭錫

嚴漢明

姜渭進

別座 察訪 徐益才

折衝 金大鼎

白介□

徐大先

乾隆 五年 庚申 四月 日 改重修



석성 수탕교 사적비



수탕교 사적비(1)

14. 수탕석교사적비(1)

소재지 : 논산시 성동면 원북2리 장독골

연월일 : 서기 1675년(숙종 1년, 을묘)

비신 높이 : 75 cm

폭 : 38 cm

두께 : 14 cm

자경 : 4 cm

석질 : 화강암

2004년 다리 복구 공사 때 새로 발견된 비로 수탕석교의 사적을 기록한 것이다. 작은 돌에 거칠게 다듬어 새겼으나 조선 초기부터 석교가 세워졌고 계속 장마로 유실될 때마다 다시 복구하거나 수리하여 세운 내력이 공사 때마다 세워졌는데 그 이전의 비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이 비가 가장 오래된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 水湯石橋事蹟碑

大施主 同知 崔破回

大施主 南宮順

大施主 徐長立

大施主 李光同

末醬施主 金士龍

施主 李大信

施主 徐享信

大施主 金武金

施主 梁 玆

施主 高尙三

施主 廉丁堂

施主 金弼生

施主 李命金

施主 張繼仁

康熙十四年三月 日立 化主李彦立

* 恩津 泮橋碑

(隸 額)

恩津泮橋碑

(碑 文)

橋之名始商著周以濟不通徒杠輿梁宜乎 王政之務也縣治西二十里許大川走海橫截兩湖路舊有石橋爲大水所毀病步已久夏潦冬漸使客商賈臨流搔頭噴舌回鞭者凡幾人哉橋梁之修責在字牧委以僧尼之任而不知在政當務莫之恤焉江景村人同知石雪山僉知宋萬雲慨然有意相謂曰吾何見其溺脛乎上無以輿濟人則下以吾單責也鳩財未一年不籍官而橋成當其始也黃山居僉知柳富業僧敬元雪遇清元礪山姜明達姜之平繼起贊成其功亦爲二人亞也是橋昔也平橋今焉虹橋壘石駕空巍巍其制自此來往人莫不咨嗟曰水上虹霓履若坦途足下波濤便是平陸倘無數千金之捐何以辨此倘無二三人之力何以訖功互萬世不破則互萬歲渡此橋者不知其幾千億利其涉而頌其功當初有故中撤皆慮無終彼二人者忘食竭力卒之爲三南第一橋噫責有所歸而意在民譽視若奏療者今以成就較其短碑則賢愚果何如耶仍爲之銘曰

泮水長流泮橋長留嗚呼七人與橋共休

通德郎 金呂重撰

漢陽後人 趙尙命書

大施主秩

大大施主

嘉善

高天鶴

嘉善

鄭廣碩

石雲山

母

朴氏

嘉善

金德山

妻

朴氏

鄭善山

通政

李春鶴

妻

張氏

雍正九年 辛亥 四月 日立

*은진 미교비

다리란 이름은 중국 상나라 때 시작하여 주나라 때 드러났다. 이로써 다니지 못하던 곳을 건너게 되니 도보로 건너는 작은 다리와 수레가 건너는 큰 다리의 건축은 마땅히 국가의 의무이다. 이 고을 읍내 서쪽 이십리 지점에 큰 냇물이 바다로 흘러가면서, 충청도와 전라도를 이어주는 길을 끊고 있다. 옛날에 이곳에 돌다리가 있었는데 큰 홍수로 훼손되어 건너기가 곤란한지 꽤 오래되었다. 여름 장마와 겨울 살얼음에 길손과 장사꾼들이 여기에 당도하여 다리가 없어 머리를 급적이고 허를 차며 발길을 돌린 자가 과연 얼마나 되었겠는가.

다리를 만드는 책임이 관할 수령에게 있는데 수령들은 그 책임을 중들에게 맡기고 자기들의 힘쓸 임무를 망각하고 마음도 쓰지 않았다. 강경 사람인 동지 석설산과 첨지 송만운이 이를 슬퍼하여 떨치고 일어나 뜻을 세워 서로 일러 가로되 『우리들이 어찌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과 바지 견고 물 건너는 사람들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위에서 수레로 사람을 건넌이 없으니 아래로는 우리들의 책임이라.』 하고 재물을 거두어 모으기 시작한지 일년이 채 못되어 관에 의뢰하지 않고 다리를 건설하였다.

다리 놓는 일을 시작하니 황산에 사는 첩지 유부업과 중 경원과 설우 청원과 여산의 강명달과 강지평이 잇따라 일어나서 협조하였으니 그 공로가 또한 두 사람에 버금간다. 이 다리가 예전에는 평평한 다리였는데 지금은 무지개 다리로서 포개 쌓은 돌이 공간을 이루니 그 모습이 높고 크고 웅장하다. 이때부터 오고 가는 사람들이 모두 탄복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물위에 뜬 무지개를 밟고 건너기가 마치 평탄한 길 같고 밭 아래 파도치는 물결 위를 마치

평평한 땅 밟는 것 같이 편안하다』 하였다. 만약 수 천금의 의연금에 없었다면 어떻게 이를 갖추며 만약 몇몇 사람의 힘이 없었으면 어떻게 이 일을 끝마치겠는가? 영원히 파손되지 않는다면 오래도록 이 다리를 건너는 자 몇 천명이 편리하게 사용하며 그 공을 칭송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당초에 사정이 있어 일시 공사가 중단되니 모두들 끝내지 못할까 염려했는데 두 사람이 식음도 잊고 힘을 다하여 끝마치니 삼남에 제일가는 다리가 되었다. 아! 책임이 돌아감에 있는 뜻은 백성들의 여망에 있는데 이를 남의 일 보듯 하던 것이 지금에 이들이 성취한 것이 작은 비에 밝히 드러났으니 어찌 과 어리석음이 과연 어떠하겠는가?

이에 명을 지어 가로되

미냇물이 길게 뻗어 흐르니 미냇다리가 영원히 머물러 있겠도다.
아! 일곱 사람은 다리와 더불어 같이 행복할지이다.

통덕랑 김여중 짓고
한양후인 조상명 쓰다

용정 9년 신해 4월 일 입



은진 미교비. 후면



은진 미교비. 전면



은진 미교비

13. 은진미교비

소재지 | 논산시 채운면 삼거리

연월일 | 서기 1731년(영조 7년, 신해)

찬자 | 김여중

서자 | 조상명

비신 높이 | 158cm

폭 | 68cm

두께 | 2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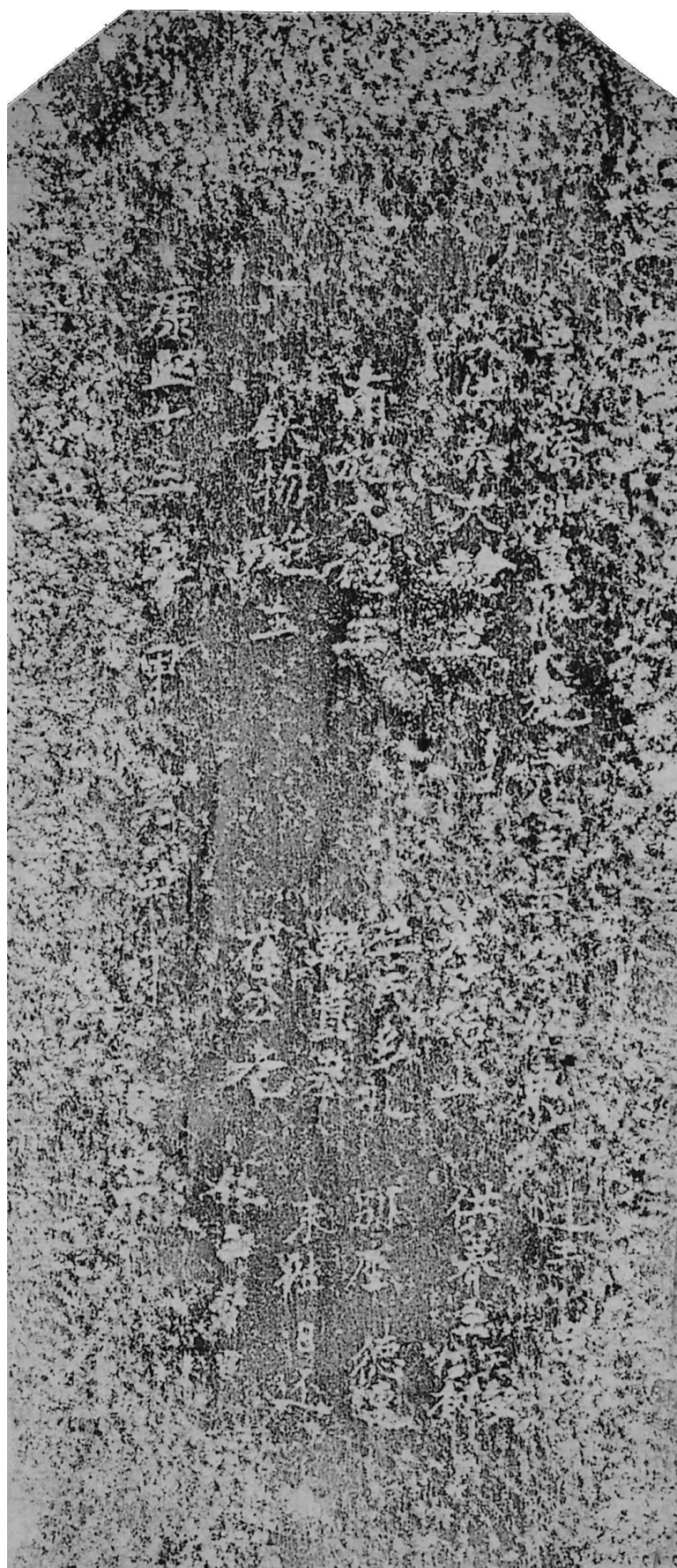
자경 | 3.2cm

에액 | 10cm

석질 | 화강암

은진에서 강경 금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작은 강이 있다. 옛날에는 호남에서 상경하는 대로이어서 이 강을 건너야 했다. 이 작은 강을 미내라고 부르며 돌다리를 놓아 「미내다리」라고 불렀다. 큰 비로 다리가 일실되어 다시 세우고 그 내역을 새긴 비를 천변에 세워 놓았었다. 대로가 바뀌고 다리도 위치를 바꾸어 현대식으로 건설하여 미내다리는 쓸모가 없어져 버렸다. 오랜 세월 방치하여 다리는 파괴되고 천변의 석교비는 부여박물관 후정에 옮겨 놓았다. 근년에 논산시에서 다리를 새로 복원, 중수하여 옛 위용을 보이고 있다.

은진미교비는 화강암 비신에 운문을 조각한 비두와 좌대를 갖추고 있다. 전면에는 예액으로 「은진미교비」라고 쓰고 공사내역을 적고 있다. 후면에는 시주한 이들이 적혀 있다. 1731년 강경의 송만운이 황산의 유부업과 중경원과 설우와 청원과 여산의 강명달과 강지평등 같이 공사비를 모아, 전라도와 충청도를 잇는 삼남 제일의 석교를 놓았다고 새겨져 있다.



초포교 중수비



초포교 중수비

12. 초포교비

소재지 | 논산시 광석면 항월리, 초포

연월일 | 서기 1674년(현종 15년, 갑인)

비신 높이 | 130cm

폭 | 53cm

두께 | 23cm

자경 | 4cm

석질 | 화강암

천변에 다리를 놓고 공사 내역을 새긴 석비를 세워 놓았는데, 세월이 흐르고 길이 없어지고 다리를 사용하지 않아 홍수로 파괴되었다. 비마져 천변에 쓸어져 있던 것을 최근에 넷둑 너머로 이전해 놓았다. 화강암 귀접이 비신에 각자 되어 있다.

초포교는 호남과 한양을 잇는 석교로 인마의 통행이 많아 초포원(草浦院)을 두고 쉬어가게 하였다. 호남에서 제일간다는 채운미 내다리를 거쳐 원향교를 지나 이곳 초포를 지나게 되어 있었다. 여기를 거쳐 부여 경계인 수탕석교를 지나가게 되었다. 거기에도 수탕원(水湯院)이 있었다.

초포석교도 수년마다 겪는 큰 장마로 다리가 유실되거나 파괴되어 수시로 중수를 해야 했다.

* 草浦橋碑

草浦橋樑重修

大施主 化主 李始東

供養大施主 李始山

南施大施主 李氏多禮

韓貴奉

鐵物施主 崔公老

術手 □ □

供養主 □ □

別座 德連

□ □ □ □

康熙十三年甲寅四月 日立

* 忠奴永上貴上碑

忠奴貴上、永上之碑

夫三綱五品天道之常人倫之大者又有奴主之義主恩奴義故奴事主如臣事君主使奴如父使者嗚呼此雖逸於三綱五品其義一也盖忠孝烈世惑有之至若忠奴自古罕有而豈有如吾先祖白峯公之奴子永上貴上二人之忠其主者乎吾先公年方廿九當丙子虜難聞 乘輿播遷南漢以白衣倡義與知縣金忠愍公諱弘翼同時殉節於賊陣其時隨奴斯二人見其主死於賊遂控馬馳入賊圍以公之膝襪黑色表異求之積尸中因返于連山襄奉於公之先兆下噫微斯二人寧有吾祖之葬魄乎領樞趙公寅永撰公之墓碣銘曰匹夫而勤 王義也書生而從戎勇也黑膝殊製死以自誓貞也白刃交下戰不旋踵烈也四者備矣亦足以風厲百世其感於人也奴能竭其力亞銓兪星煥撰公之旌閭記中有曰公之忠臣之旌煥焉有閭則不以忠奴之旌旌之於其側其可乎余以此竊有所恨者云尤況爲公之裔者豈無興歎之義哉今以尺石表忠立於公之旌閭之側爲世世不忘焉銘曰

臣忠於君奴忠於主 奧輿南漢虜酋構禍 國運不祥播遷 乘輿 南漢民和西湖士義 黃城朱紱青洞白衣募士三千隨奴一二沒岳臘雪險川曉霧 腥塵紛起白刃交下 天地晦冥城化 具害 吁此人兮失主之處曰 主旣決死奴將何去 馳入賊圍收出公屍 白面如生黑膝尙存 大義堂堂日月不泯 故山丹旌先墓白楊 嗚呼 微斯二人我祖誰葬 風前勁草雪裏孤松 主其棹楔天恩罔涯 奴未旌忠我咎何居 哀此殘劣收議鳩財 勒石頌功記茲萬一 諸員出義滿座頌德 主閭煥然奴碑側焉 槐蔭滿庭松梓成阡

종은 아직도 그 충정을 나타내지 못했으니, 우리 허물을 어찌 할가

슬프도다. 이 높고 용렬한 사람이 의논된 것을 모아, 경비를 마련하고

비석을 다듬어 그 공덕을 새겨 칭송하나, 여기에 만분의 일만 기록하였을 뿐이다.

모든 사람이 의금을 내고 모인 사람들이 공덕을 칭송하도다.

주인의 정려는 화려하고, 종의 비석은 그 곁에 섰구나.

뜰엔 삼공, 백관이 가득 차고, 선영엔 공신들의 묘소로 이루어졌도다.

*충노영상귀상비

(역문)

충노 귀상, 영상 지비.

삼강 오류는 천도의 불변 법칙이요, 인류의 큰 것이요, 또 종과 주인의 의가 있으니, 주인은 은혜롭고 종은 의로워야 한다. 종이 주인 섬기기를, 신하가 임금의 섬기는 것같이 하여야 하니, 아, 아! 이는 비록 삼강 오류에는 드러가 있지 않으나, 의리는 한가지이다. 충과 효와 열은 세상에 혹 있거니와 충노에 있어서는 예부터 드물게 있는데, 어찌 내 선조 백봉공의 종영상과 귀상 두 사람이 그 주인에게 충성한 것과 같은 일이 있었는가. 백봉공이 나이 29세 때에 병자호란이 일어나, 임금의 수레가 남한산성으로 파천했다는 소식을 듣고, 백면서생으로 의병을 일으켜 고을 원님 김충민공 홍익과 함께 적진에서 순절하였다. 그 때 공을 수행했던 두 종이 그 주인이 적에게 죽임을 당한 것을 알고, 적진에 달려들어가 공의 행전과 버선이 검정색으로 남다르게 착용한 것을 근거로 쌓인 시체 속에서 찾아내어, 그대로 연산으로 모셔와 공의 선영에 장사하였으니, 아 슬프도다. 이 두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 할아버지 체혼을 어찌 장사지낼 수 있었겠는가. 영종주부사 조공의 묘갈명에 찬하여 가로되, 「필부로서 나라 일에 진력함은 의요, 서생으로 출전함은 용이요, 검은 행전으로 남다르게 착용하여 죽을 것을 스스로 맹세함은 정이요, 시퍼런 칼로 서로 치고 싸우되 물러서지 않음은 열이다. 이 네가지를 갖추었으니, 족히 백세 동안 힘써 높이겠으며, 그가 사람을 감화시켜서 종도 그 힘을 다 하게 하였

정려기를 지었는데, 거기에 공은 충신이어서 화려하게 정려를 세웠으나, 충로의 충성을 그 결에 표함의 옳지 않겠는가, 하였다. 더구나 공의 후손된 자가 어찌 같은 마음의 의리가 없겠는가. 이제 간단한 비석에 충성을 표하여, 공의 정려 결에 세우고, 세세토록 잊지 않게 하리라. 명하여 가로되,

신하는 왕에게 충성하고, 종은 그 주인에게 충성하였으니, 옛 병자년에 북쪽 오랑캐 두목이 병란을 일으켜, 국운이 상서롭지 못하여 임금이 파천하니, 광주 남한산성 백성들이 화합하고, 충청서호의 선비들은 의롭게 일어나니,

연산 황산의 현감과 청동의 서생 백봉이

의병 삼천을 모집하고, 이를 따르는 두 사람의 종도 있었다. 선달 찬 눈이 온 산을 덮고, 새벽 안개가 험천에 끼어, 피비린내 나는 먼지가 어지럽게 일어나고, 시퍼런 칼날이 번득이고 천지는 어둡고 캄캄한데, 원님과 공이 함께 살해되니, 슬프도다. 이들에겐 주인을 잃은 곳이다.

두 사람이 말하기를, 주인이 이미 죽었으니, 종은 장차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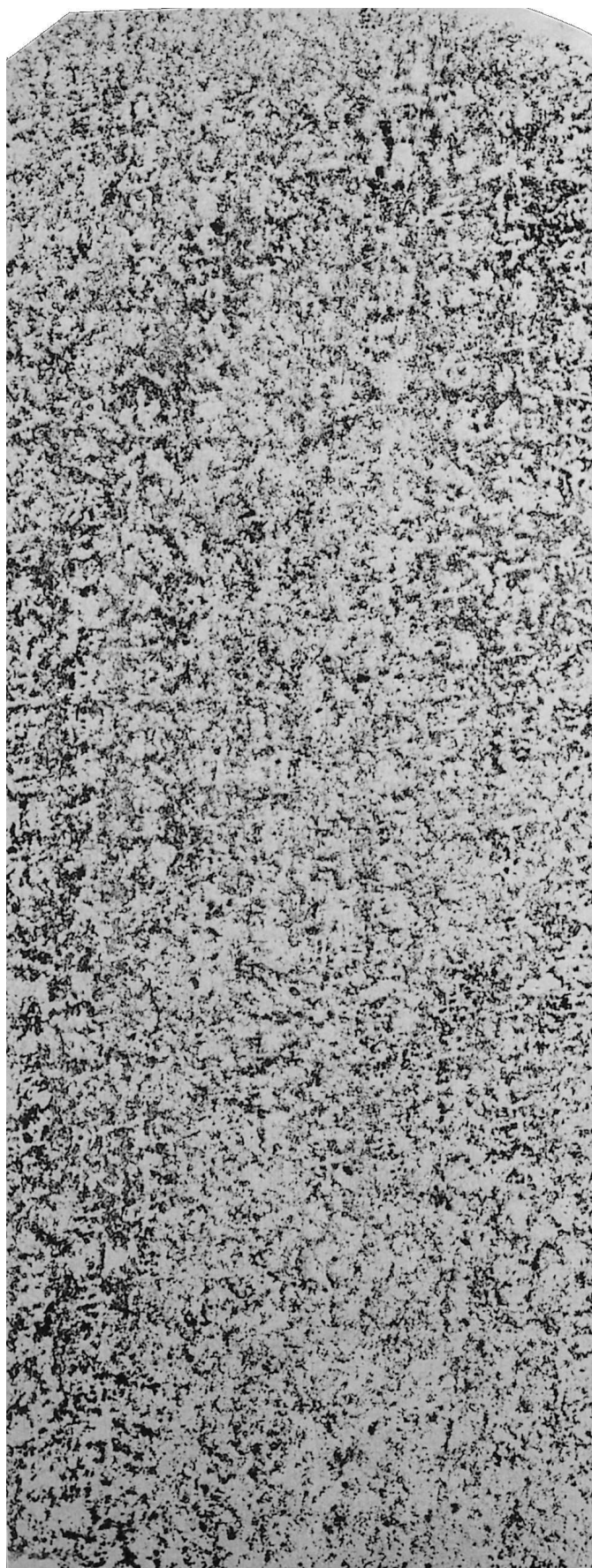
적진에 들어가 공의 시신을 거두어서 나오니,

얼굴은 생시와 같고, 검은 행전은 그대로 치고 있었다.

대의가 당당하여 일월같이 빛나리니,

고향에는 붉은 정려가 있고, 묘소에는 백양나무가 무성하도다. 오호라. 이 두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 할아버지를 어떻게 장사지냈겠는가.

바람 앞에 억센 풀이요, 눈 속에 우뚝 선 소나무 같도다. 주인에겐 이미 정려가 내려져 임금의 은혜가 한량 없으나



충노 영상 귀상비



충노 영상 귀상비. 전면



충노 영상 귀상비

11. 충노 영상·귀상비

소재지 | 논산시 연산면 청동리, 청동골

연월일 | 서기 1853년(철종 4년, 계축)

비신 높이 | 108cm

폭 | 44cm

두께 | 16cm

자경 | 2.7cm

석질 | 화강암

이민진의 묘소가 있는 연산 청동리 청동골에 그의 정려각이 있고 그 옆에 충노 영상, 귀상의 비가 세워져 있다. 이민진은 병자호란 때 연산의 의병들을 이끌고 남한산성으로 원정을 떠났다. 떠나기 전에 이미 나라를 위해 죽을 것을 각오하고 검정색 버선과 행전을 차고 갔다. 남한산성 가까이 광주 협천에 이르러 왜적의 저지를 받아 치열한 전투 끝에 장렬히 전사하였다. 전투가 끝난 후 동행한 노비 영상과 귀상이 많은 전사자 중에서 검은 버선과 행전을 찬 주인을 발견하고 그 시신을 고향까지 모셔와 장사를 지냈다. 주인에게는 정려가 내려졌으나 노비에겐 아무런 포상이 없었다. 집안에서 그들의 충직한 공을 생각하고 충노비를 세워주었다.



충노 무작금비. 정려 옆



충노 무작금비. 묘소 아래

10. 충노 무작금비

소재지 | 신비 |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구비 | 완주군 화산면 운산리

연월일 | 구비 | 서기 1668년

신비 | 서기 1877년

비 신 | 20cm

자 경 | 6cm

석 질 | 화강암

충노 무작쇠는 병자호란 때 의병으로 나가 순국한 김수남의 노비이었다. 주인의 시신을 고향까지 모셔와 화산 운산에 장사하게 하였다. 그 충직한 노비를 기리기 위하여 1668년 김수남의 묘표를 세울 때 묘 발치에 작은 비를 세워 주었다. 무작금이라고 표기된 것으로 보아 「무작쇠」를 한자로 표기할 때 「무작금」이라고 표현한 것 같다. 김수남의 묘소는 화산에 있지만 은진 사람으로 정려가 연무 금곡리에 있고 정려 옆에 충노 무작금의 비가 세워져 있다.

* 遯巖書院碑

(前 面)

連山遯巖書院之碑

(陰 記)

書院舊在林里事蹟詳於吾先子文正公之文矣其後以文正公暨同春宋先生追舉賸儀蓋於先生爲嫡傳也肅肅中堂悅復如超庭立雪之日於戲盛矣年代寢邈山谷遷易水失其道浸齧宮牆勢莫能遏士林是庸爲懼乃以 今上庚辰敕卜於其南一里虎溪之邱是亦先生杖屨之地也惟凝道堂獨立於舊址巋然若魯靈光而特揭養性舊額碑亦仍屹于其前焉祠宇之材翰而用之其餘易而改之制度一視舊規堂塗門塾少不差爽而所異者移揭凝道堂額於外舍不能建居敬精義齋而扁於講堂左右夾室山仰樓亦不得成只揭其額於內舍廳楣墻圍而爲門仍曰入德嗚呼閒架雖有大小之異規模更無新舊之殊於是乎泰山喬嶽巖巖乎其復臨光風霽月灑落乎其復接而江漢羹墻之思有所寓矣嗚呼先生以三千三百之禮啓發昏蒙者無非布帛菽粟之不可一日闕焉乃得三先生傳授而無弊彝倫賴以不墜人文得以不晦凡有血氣者莫不知君臣父子之道無所逃於天地之間而得免夷狄禽獸之域伊誰之賜歟嗚呼震風凌雨然後知廈屋之爲帡幪懷山襄陵然後知龍門之爲砥柱衆言淆亂然後知聖賢之爲郭郭願今五世之澤未斬而邪說興七十子已沒而微言絕竟至皮卉之類腥羶八字鼓簧一世貿貿焉入于長夜遂使諸先生所闡明者幾乎熄矣嗚呼入斯院而登斯堂者豈徒尊慕諸先生而止而已乎哉其將以諸先生之心爲心冠先生之冠服先生之服講先生之書守先生之義使其平日至公血誠扶持之道毋使永墜於地則諸先生洋洋陟降之靈亦必莞爾也若爾則其所以興衛先生者至矣豈特曰尊慕而已乎哉

時昭陽單闕暮春下澣

後學嘉義大夫司憲府大司憲兼成均館祭酒侍講院贊善 經筵官書筵官恩津宋秉璿撰

後學嘉義大夫吏曹參判兼同知 經筵義禁府春秋館事侍講院檢校輔德宋道淳書

때는 신묘 3월 하한

후학 가의대부 사헌부 대사헌 겸 성균관제주 시강원 찬선
경연관 서연관은 진 송병선은 찬하다.

후학 가의대부 이조참판 겸 동지경연의금부 춘추관사 시강
원 검교 보덕 송도순은 쓰다.

(역 주)

- ① 문정공(文正)―우암 송시열의 시호。
- ② 적전(嫡傳)―정통에서 정통으로 전함。
- ③ 추창(趨蹌)―예도에 맞도록 허리를 굽히고 빨리 걸어감。
- ④ 장구지소(杖屨之所)―홀륭하게 이름난 사람이 머무르던 자취가 있는 곳。
- ⑤ 광풍제월(光風霽月)―도량이 넓고 시원함。簑庭堅이 周敦、頤의 인품을 평한
말로 마음결이 명쾌하고 집착이 없으며 왜라함을 이룸。
- ⑥ 강한(江漢)―
- ⑦ 개장(羹牆)―仰慕之辭。(後漢書、李固傳)―昔堯조之後舜仰慕三年坐則見堯
於牆食則都堯於羹
- ⑧ 포백(布帛)―
- ⑨ 숙속(菽粟)―

* 돈암서원비

(전 면)

연산 돈암서원비

(음 기)

서원은 옛날에는 임리에 있었고, 그 사적은 우리 선조 문정공^①의 글에 자세히 있다. 그 후에 문정공과 동춘 송선생을 보태어 배향하였으니 대개 선생에게 적전^②이 된다. 엄숙한 중당에서 다 시 황공하게 뜰 앞을 추창^③하여 눈위에 섰던 날과 같으니 참으로 창성하도다. 연대가 점점 멀리 지나가니, 산골이 변하여 바뀌고 냇물도 그 흐르던 물길을 잃고 서원 담 밑을 침식하여 그 기세를 막을 수 없으니, 사람들이 두려워 걱정하여 순조 경진년에 서원 남쪽 오리쯤 떨어진 호계의 언덕에 터를 잡았으니 여기 또한 선생의 장구지소^④이다.

오직 응도당만이 그대로 옛 터에 홀로 서 있어서 마치 노나라 임금의 은덕과 같다. 다만 「양성당」이란 옛액자가 걸려 있고 비석 또한 그 앞에 우뚝 서 있었다. 서원 사주의 재목들은 실어다가 그대로 쓰고 그 나머지는 바꾸어 고치고, 서원 제도는 한결같이 옛 법규를 따르고, 당과 벽과 문과 글방은 조금도 차이가 없이 하였다. 다른 것은 응도당의 액자를 외사에 옮겨 걸고, 거경재와 정의재는 세우지 못하여 강당 좌우의 협실에 그 액자를 걸어 두고, 산양루 또한 세우지 못하고 다만 그 액자만 내사청의 문설주에 걸었다. 담을 둘러치고 문을 만들어서 말하기를 「임덕」이라 하였으니, 오후라. 구조는 비록 대소의 다름이 있으나 규모는 전과 같아 옛것에 다름이 없다. 이제야 태산 같이 우뚝하게 그

모습이 다시 나타나고, 광릉제월^⑤ 같이 시원하고 깨끗하게 다시 대하게 되니 강한^⑥ 강장^⑦의 생각이 머무를 수 있는 곳이 되었다. 오후라. 선생이 삼천 삼백의 예로 깨우치지 못한 이를 가르쳐서 포백^⑧과 속속^⑨으로 써 하루라도 그대로 지나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세분 선생이 전수한 것을 얻어서 폐하지 아니함으로 몇몇하게 윤리가 힘을 얻어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인륜과 질서를 얻어 문패에서 벗어나고, 혈기가 있는 자가 군신 부자의 도를 알지 못하는 이가 없어져서 천지 사이에 피할 곳이 없게 되고, 오랑캐나 짐승의 지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 누구의 배품이나!

오후라. 우레가 치는 바람과 심하게 내리는 비가 온 후에 큰집이 보호막이 됨을 알고, 산을 품어 보고 언덕을 넘어간 후에야 용문의 지주처럼 명망이 높아 난세에 절조 지킴을 알고, 대중의 여론이 어지러운 연후에 성현들이 이를 막고 지켜서 보전함을 알게 된다. 돌아보건대 이제 다섯 세대의 은택이 갈리기도 전에 그릇된 설이 일어나고, 70 현자가 죽은 뒤에 오묘한 말씀이 끊어져서 마침내 피뢰의 류가 팔방을 썩히고 한 세상을 시끄럽게 하여 무모하게도 어두운 긴 밤으로 들어가게 되어, 결국 여러 선생께서 천명하신 것들이 거의 끊어지게 되었다. 오후라. 이 서원에 들어가서 이 마루에 올라간 자가 어찌 한갓 제 선생을 존중하고 사모하는 데 그칠 뿐이겠는가. 장차 여러 선생의 마음으로 마음을 삼고, 선생의 관으로 관을 쓰고, 선생의 옷으로 옷을 입고, 선생의 글을 강론하고, 선생의 의를 지켜서, 선생이 평일에도 지극히 공변되고, 피나는 정성으로 지켜온 도리가 땅에 영원히 떨어지지 않게 하여 여러 선생의 양양하게 오르고 내리신 신령이 반드시 빙그레 웃게 할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하면 선생을 받들고 보위하는 것이 지극할 것이니; 어찌 다만 송모라고만 말할 수 있겠는가.

其前烏祠宇之林輪而用之其餘易而改之制度一視舊規堂內整少不美集而兩異者
 移揭巖道堂額於外舍不能建居發精義齋而爲於講堂左右夾室山仰樓亦不得成只揭
 其額於內舍廡相牆圍而爲門仍曰入德嗚呼間架雖有大小之異規模更無新舊之殊於
 是乎泰山喬嶽巖巖乎其復臨光風霽月灑落乎其復接而江漢羹牆之思有所寓矣嗚呼
 先生以三千三百之禮啓發昏蒙者無非布帛菽粟之不可一日闕焉乃得三先生傳授而
 無弊矣倫賴以不隊人文得以不晦元有孟氣者莫不知君臣父子之道無所逃於天地之
 間而得免夷狄禽獸之域伊誰之賜歟嗚呼震風凌雨然後知廈屋之爲憺憺懷山襄陵然
 後知龍門之爲砥柱衆言淆亂然後知聖賢之爲邪郭顧今五世之澤未斬而邪說興七十
 子已沒而微言絕竟至皮弁之類腥羶八字鼓簧一去貿貿焉入于長夜遂使諸先生所聞
 明者幾乎熄矣嗚呼入斯院而登斯堂者豈徒尊慕諸先生而止而已乎哉其將以諸先生
 之心爲心冠先生之冠服先生之服講先生之書守先生之義使其平日至公血誠扶持之
 道毋使永隊於地則諸先生洋洋陟降之靈亦必莞爾也若禽則其所以與衛先生者至矣

豈特曰尊慕而已乎哉時昭陽單開暮春下潞後學嘉義大夫司憲府大司憲兼成均館祭
 酒侍講院贊善 經筵官書筵官恩津宋秉璿撰後學嘉義大夫吏曹參判兼同知 經筵
 義禁府春秋館事備請院檢校輔德宋道淳書

(측면)

돈암서원 이견비

(후면)

書院舊在林里事蹟詳揭吾先子文正公之文矣其後以文正公暨同春宋先生追舉服儀
蓋於先生爲嫡傳也肅肅中堂悅復如趨庭立雪之日於戲盛矣年代寢邈山谷遷易水去
其道浸邇宮牆勢莫能遏士林是庸爲懼乃以今上庚辰夏卜於其南一里帝溪之卯是
亦先生杖屨之地也惟凝道堂獨立於舊址巋然若魯靈光而特揭養性舊額碑亦仍屹于

連山遯巖書院之碑



돈암서원 이건비

9. 돈암서원 이견비

소재지 | 논산시 연산면 임리

연월일 | 서기 1903년(순종 7년, 계묘)

찬자 | 송병선

서자 | 송도순

비신 높이 | 129cm

폭 | 49cm

두께 | 18cm

자경 | 2° 7cm

전면 | 13cm

석질 | 청석

돈암서원은 원래 연산 하림에 옛양성당 자리 옆에 건립하였는데, 큰비가 내려 홍수가 지고 사우가 침식되어 훼손을 염려하여 1880년에 지금의 자리로 이견하였다. 이견 공사를 수년에 걸쳐 마치고, 1903년 그 내력을 비에 새겨 서원을 밖에서 세워 놓았다.

청석 비신에 팔각 지붕 모양의 가첨석을 얹고 낮은 동대석을 갖추어 있다. 비문은 송병선이 짓고 비문 글씨는 송도순이 썼다.

* 臨履亭記

履亭者在湖南礪山府黃山之麓世傳以爲我 先祖文元公沙溪先生丈屨棲息之地也亭舊一架茅棟循麓而下有 先生遺墟之址距 先生連山之居爲四十里 先生建牛溪成文簡栗谷李文成二先生祠於亭之西而亦嘗至是亭而教授弟子云謹案 先生天啓丙寅歲與門人同春宋文正公書曰萬曆丙午崔命龍宋興周尹雲衢相約結屋于黃山江上爲講學之所因立栗谷廟吾往相其地經營未久異類惡我者往讒於時宰欲推治命龍故卽停役 反正後興周通諭列邑爲栗谷立祠並舉牛溪一依朱子釋宮爲之院之上櫟吾亦往參据是書則丙午結屋未就而 先生惟相其地矣丙寅立院而 先生惟往參矣若繕亭于麓置廬其下無文字季月之可徵然或於立院之時別構亭廬於此歟 先生易簀後並享茲院後又享靜菴趙文正退溪李文純二先生而門人尤菴宋文正公作八卦亭於西麓而居與是亭相望而書院翼然出其中尤翁終又入亭 賜額曰竹林焉亭久圯頽士林齋咨 哲宗庚申諸章甫謀于湖西觀察使沈承澤鳩財重葺內爲六稜之室外繚欄檻覆以瓦不改舊制之狹 先生後孫漢鉉董之今辛未有 朝令停疊設之享院於是乎墟而亭則不毀矣後孫光鉉守護甚謹請尙鉉紀其事刻之石嗚呼亭固一架之小也而納宇宙變化之妙包陰陽消長之幾岷巖擁浚濤瀧襟前悠久不騫將與之同其壽俎豆雖撤矣而六先生英靈攸妥殆近三百年松篁禽魚涵泳於仁智之中道統之傳如日星麗乎天光景所被萬古常新理亦有不遠之復庶不待百世而論定也歟亭之扁以臨履未知 先生所命耶是出尤翁手筆則或尤翁名之耶詩云戰戰兢兢如臨深淵如履薄冰而今而後吾知免夫此曾子之言也恭惟 先生專用力於曾子之學故尤翁之序 先生遺稿曰孔子門諸子聰明才辯不爲不多而卒得其宗乃質魯之曾子而已是亭之名蓋取斯義

文元先生後孫嘉善大夫前任吏曹參判兼同知

經筵成均館事弘文館提學金尙鉉謹撰

後孫通訓大夫前任弘文館教理知製教兼 經筵侍讀官春秋館記事官別兼春秋金永穆謹書

今上十二年乙亥三月 日刻立

의 학문에 힘을 썼다. 이런 까닭에 우옹이 선생의 유고의 서문에 서 이르기를 「옛날 공자의 제자들은 총명하고 재변이 있는 이들이 많았지만 마침내 그 도통은 자질이 노둔한 증자가 얻었음을 따름이다. 이 정자의 이름은 모두 이런 뜻에서 취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문원 선생 후손 가선대부 전임 이조참판 겸동지경연 성균관사홍문관 제학 김상현 기문을 삼가 짓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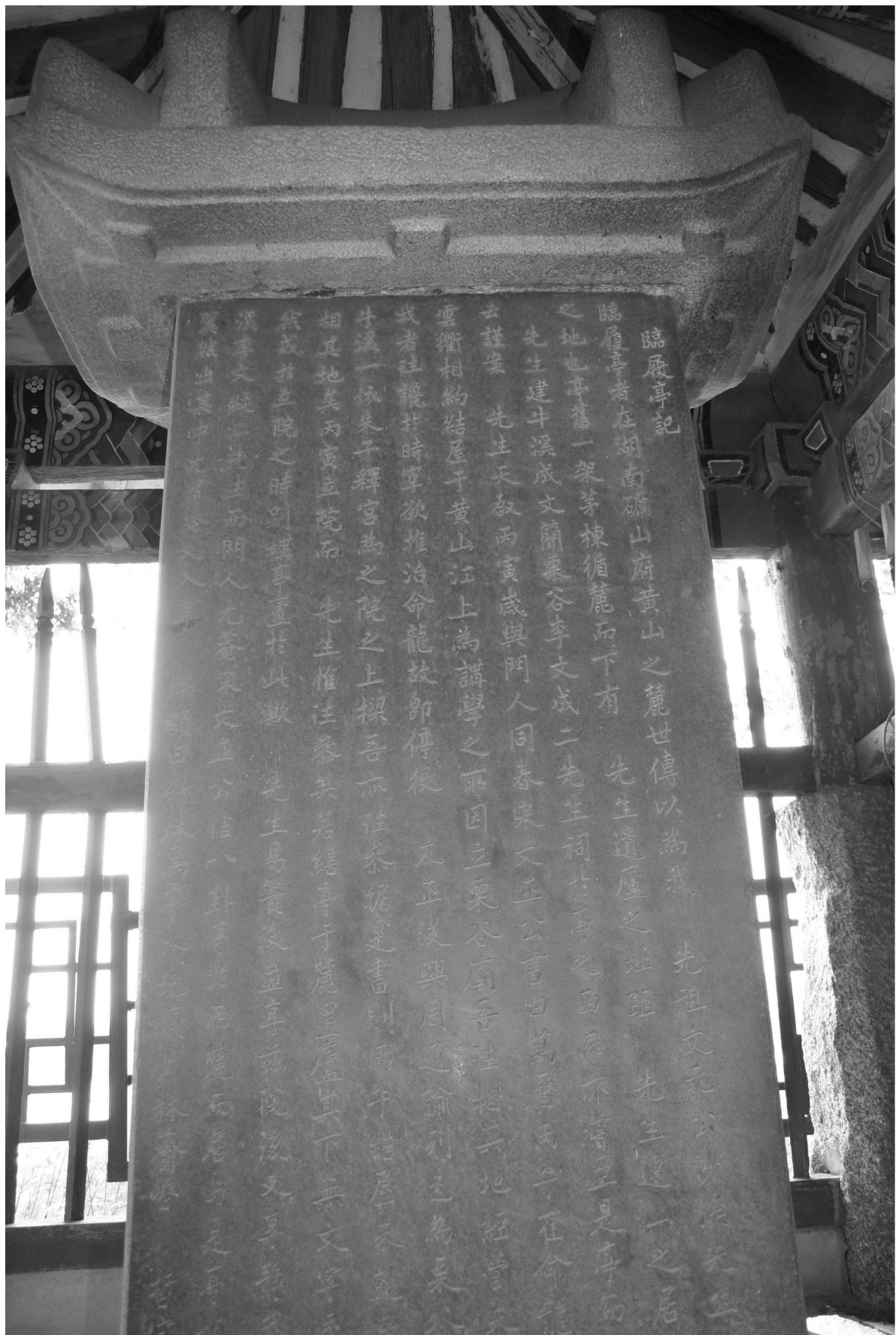
후손 통훈대부 전임 홍문관교리 지제교 겸경연시독관 춘추관기사관 겸춘추 김영목 삼가 비문을 쓴다.

고종 12년(1875) 을해 3월 일일에 세우다.

* 임이정기비문

임이정은 호남 여산부 황산의 산기슭에 있다. 대대로 전해오기를 이곳은 나의 선조 문원공 사계선생께서 머물러 거처하시던 곳이라고 한다. 정자는 옛날엔 도리가 하나인 초가이었고 산기슭을 따라 아래에는 선생이 머물던 집터가 있는데, 선생께서 거처하던 연산에서 40리 떨어진 곳이다. 선생은 우계 성문간공과 율곡이 문성공 두 선생을 위해 정자 서쪽에 사당을 짓고 또 일찍이 이 정자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한다. 삼가 살펴보건대 선생께서는 천계 병인(1626년)에 동춘 송문정공에게 편지를 보내어 말씀하기를 「만력 병오(1606년)년에 최명룡, 송홍주, 윤운구와 황산강 위쪽에 집을 지어 학문을 닦고 연구하는 곳으로 삼고 이로 인하여 율곡선생의 묘당을 세우고 자서로 약속하니 나도 그곳을 서로 왕래하였다. 집을 짓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나를 싫어하는 다른 무리들이 당시의 재상에게 참소하고 최명룡에게 죄를 묻고 벌을 주려고 하여 곧바로 공사를 그만두었다. 반정 후에 송홍주가 주변 여러 고을에 통문을 돌려 율곡의 사당을 세우고 우계를 함께 모셨다. 하나 같이 주자의 석공 법도를 따라 서원의 상량을 행하였고 나 또한 가서 참여하였다.」라고 하였다. 이 글은 병오년에 집을 지으려다 이루지 못하여 선생께서 그 지역을 도우려 하신 것이고 병인년에 서원을 세우니 선생께서 가서 참여한 것이다. 그런 후에 정자를 수리 하고 산기슭에 초가를 두었다. 그 이후는 내력과 년월을 가히 명백히 알 수가 없으나 혹 서원을 세울 때 따로 정자와 초가를 지은 것이 아닌가 한다. 선생이 돌아간 후 더불어 배향되고 이 서원에 후에 정암 조문정공과 퇴계이문순공 두 선생을 배향하였다. 그리고 문인 우암 송문정공은 서

편 산기슭에 팔패정을 짓고 거기 거하였는데 이 임이정과 서로 마주 바라보아 서원의 날개처럼 그 가운데 드러났다. 우암이 돌아가니 또 서원에 배향되었다. 사액을 받아 죽림이라 하였다. 서원이 오래되어 무너지고 기울자 사람들이 탄식하고 철종 경신(1860년)년에 여러 유생들이 호서 관찰사 심승택과 상의하여 재물을 헌납 받아 모으고 중수하니 안으로는 여섯 간의 방을 만들고 밖으로는 난간을 두르고 기와를 덮었다. 예전 제도의 협소했던 것을 변경하지 않았다. 선생의 후손 한현이 중수의 감독을 맡았다. 신미(1871년)년에 서원 배향의 거둬들임 설치를 그만두라는 조정의 철퇴명이 있어 서원은 폐철 되었으나 정자는 헐리지 않았다. 후손 광현이 지켜 보호하였고 더욱 간절히 상현에게 청하여 그 일을 기록하게 하고 돌에 새겼다. 슬프도다. 정자는 한 도리의 작은 규모이나 우주 변화의 묘함을 거두어들이고 음양의 커지고 작아지는 기미를 포함하고 있으니 험준한 바위를 끌어안고 큰 물결과 급한 소용돌이를 가슴에 안으니 앞으로 오래도록 이지러지지 않으며 장차 더불어 그 수명을 함께 할 것이다. 제향은 비록 폐지하였으나 6 선생의 영령은 평안하니 거의 300년 가까이 소나무와 대나무, 날 짐승과 물고기들도 어짐과 지혜의 가운데에 젖어들게 하였으니 도통의 전해짐이 해와 별과 같이 아름답지 아니한가. 하늘의 광경은 예로부터 항상 새로움을 힘입은 바니 이치 역시 멀지 않아 회복됨이 있으리라. 아마 백세를 기다리지 않아 논하여 결정되지 않았는가. 정자의 편액은 임이(臨履)인데, 선생께서 명하여 한 것인지, 아니면 이 편액이 우암의 친필이니 우옹이 이름한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 시경에 이르되 「매우 두려워하여 조심하기를 마치 깊은 연못에 임한 것 같이 하고 얇은 얼음을 밟는 것 같이 하라」는 말이 있으니 지금 이후에는 우리는 걱정을 면하게 되었으니 이는 증자의 말씀이다. 삼가 생각건대 선생께서는 오로지 증자



임이정기비석



임이정기비석

8. 임이정기(臨履亭記)

소재지 -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

연월일 - 1875년

찬자 - 김상현

서자 - 김영목

비신 - 청석

비신 높이 - 134cm

폭 - 62cm

두께 - 20cm

강경 황산동의 죽림서원 동쪽 기슭에 임이정(臨履亭)이 있다. 사계 김장생이 연산에서 왕래하며 강학하던 곳이다. 정자 아래에는 초가집터가 있는데, 이 고을 사람들은 옛날부터 전해오기를 사계선생이 머무르던 구택이라고 한다. 임이정은 처음에 조그만 정자이었는데 정자가 오랜 세월에 기울어지고 무너지기 시작하여 1860년(철종 11년)에 지금의 건물로 개축하여 하나의 도리에 여섯 칸 크기의 집을 건축하였다. 그리고 임이정 앞뜰에 임이정기를 새긴 비를 1875년에 세웠다.

정자의 편액은 임이(臨履)인데 사계선생이 지은 것인지 아니면 우암 송시열이 손수 쓴 것으로 보아 우암이 지은 것인지 분명치 않다. 그러나 「임이」의 글은 시경에 나오는 「매우 두렵고 조심스럽게 하기를 깊은 연못에 임한 것같이 하고, 얇은 얼음을 밟는 것 같이 하라」(戰戰兢兢如臨深淵如履薄冰)는 증자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다.

임이정은 처음에는 황산정(黃山亭)이라고 불렀는데 후에 임이정으로 부르게 되었다. 송구봉선생의 시가 전해지고 있다.

한 굽이 흐르는 강물 산위 정자를 감싸 돌고

언덕 위의 넓은 숲은 더 더욱 푸르르고
또 강둑 앞에는 향부자 풀이 땅을 덮어
신발이던 버선발이던 거리낌 없이 걸으니 하늘 더욱 맑구나.
(山圍大野水廻亭 護岸長林一培清 又有前堤莎被土 不妨鞋襪步新晴)

* 萬竹徐先生廟庭碑

(前 面)

萬竹徐先生廟庭

(陰 記)

夫觀人之術或有事功之各殊而當究用心之所同尼父之思見好仁惡不仁者如顏子之和仲由之剛宜若方圓之不相入而惡之則可以至於好故所以好惡之並稱也當我 穆陵之世栗谷先生以東西黨議之相軋至誠調停浴圖保合者卽好仁之心也公在義州與敍川時疏斥汝立之反覆以辨栗松諸賢之受誣挺身瀝血不避凶焰者卽惡不仁之心也好惡之跡雖若不侔而憫時潰裂欲扶國事之日乖其忠愛惻恒之心與栗翁同揆也觀其逆節未萌之時直斥不諱終符先見其氣節之凜烈尤爲難能而未克展施索蘊於聖世休明之際士流之恨至今未沫者也公不樂在朝斂其浩氣卽爲退居于高山愛其山水清佳種竹萬竿以自號置一亭而臨之曰洗心杖履遊息講論以爲樂遠近學子多就請業因尊稱曰萬竹先生 世祖朝公之五世祖諱貞壽謫于恩津子孫仍家馬縣之葛山有孝子廟四方僉議皆謂公於梓鄉不可無尸祝始舉并侑於是祠槩爲百餘年之久後有追拜位次變改之議大爲未妥旣而士林咸以爲公於六谷亦爲舊居宜莫如專祠於此多士與後孫遂建祠而移奉庭畔有老杏二株綠陰覆砌輕颺繞軒可以想公昔日之逍遙其間則所以杏林揭稱者也後孫文祿廷勳今將立碑於庭屬不佞以記諛淺後生何敢述焉然無己則謹供手而復之曰古語云見木知山視友知賢蓋自朱子之世遠而眞儒不作石潭李文成公以專體之學遠承其緒公以剛直之操經濟之具早歲求道盡聞文成之說心悅誠服奉使六鎮栗谷疾革口授方略公還 朝條上便宜而栗谷已卒議竟不行後重峰上疏悼歎又與松江從遊磨礱素養深厚其言論勁直使後人激仰歎賞而不能已浸灌於師友道義之力有不可誣也公諱益字君受其先百濟王孫國亡避于唐賜姓徐氏因貫以扶餘廿三中司馬未幾擢第內歷吏兵曹佐郎弘文校議政府舍人外則敍川安東義州也。

資憲大夫司憲府大司憲兼 成均館祭酒經筵官 恩津 宋來熙 謹撰。

嘉善大夫禮曹參判兼同知 經筵義禁府春秋館成均館事弘文館檢校副提學知製教 友峯 李鎬俊 謹書。

崇禎 四周丁卯季 夏立。

송강과 더불어 친하게 지내며 학문을 닦았는데, 그 경지가 깊고 두터웠으며, 서로 주고 받은 언론이 매우 굳세고 강직하여 사람들이 로하여금 높이 칭송 받을만 하며 스승과 벗을 쫓아 도의를 닦는 힘이 있음을 속일 수 없었다.

공의 이름은 익이요, 자는 군수이며 그의 선계는 백제왕손인데 나라가 망하자 당나라에 피신하여 하사 받은 성이 서씨요, 그런 연유로 관향을 부여라 하였다. 공은 23세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얼마 후에 문과에 급제하여 내직에 들어와 이조, 병조좌랑과 홍문관 교리와 의정부 사인들을 거쳤고, 외직으로는 서천, 안동, 의주 목사를 역임하였다.

자헌대부 사헌부대사헌겸 성균관제주 은진 송래회 지음.

가선대부 예조참판겸 동지 경연의금부춘추관성균관사홍문관검교부제학 지제교 우봉 이호준 삼가 쓰다.

승정 4주 정묘 계하 세음.

(역 주)

- ① 니부(尼父)－孔子의 尊稱。
- ② 중유(仲由)－공자의 제자로 자느 子路 또는 季路이다。
- ③ 반복(反覆)－언행이 이랬다 저랬다 하여 자주 바꿈。
- ④ 석담(石潭)－李珣의 호, 다른 호는 율곡。

*만죽 서선생 묘정비

(전 면)

만죽서선생묘정비

(음 기)

무릇 사람을 보는 관점은, 사업을 이룩한 공적에 따라 각각 다르나, 그 마음 쓰는 것이 같은가를 궁구하는 것이다. 공자①의 생 각이 어진 이를 좋아하고 어질지 못한 이를 싫어함을 볼 수 있다. 안자의 화평함과 자로②의 강직함이 모진 것과 둥근 것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으나, 싫으면 좋아지도록 해야 하므로, 좋아하고 싫어함을 아울러 일컬은 말이다. 우리 선조 때, 율곡 선생이 동서 당론이 서로 알력이 있을 때, 지성으로 조정하여 화합을 도 모한 것이, 어진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라면, 공이 의주와 서천에 재임하고 있을 때, 정여립의 반복③을 배척하는 상소를 올려, 율 곡과 송강 등 제현을 모함 한 것을 변론하는데 앞장 서서 흉한 공박 을 피하지 않음은 불인을 싫어하는 마음에서였다. 좋아하고 싫어 하는 마음의 자취가 비록 같지 않은 것 같으나, 시대가 기풍이 무너지고 분열되어 국사가 날로 어그러짐을 바로 잡고자 함이니 그 충성스런 마음은 지극함이 율곡과 같은 법도이다.

여립의 역심이 싹트기 전에 옛보아 바로 척결함으로써, 거리낌 없이 끝마치게 된 것은 선견지명이었고, 그 기질과 절조가 강렬 함이니, 더욱 하기 어려운 일이며, 태평성세에 쌓아 온 포부를 밝은 세상에 다 베풀지 못하니, 선비들의 한이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았다. 공이 조정에 나아가기를 좋아하지 않아 그 호연지기를 거두어 품고, 곧 바로 고산에 퇴거하여, 그 산수가 맑고 아름다

움을 사랑하여 대나무 만 그루를 심고, 만죽으로 호를 삼았다. 정자 한채를 지어 세심정이라고 이름짓고 지팡이 집고 거닐며 자적 하고, 학문을 강론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으니, 멀고 가까운 곳에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 학업을 받고자 청하므로 이로 인하여 만죽선생이라고 불리워졌다. 세조조에 공의 5세 조인 정수가 은진으로 귀양와서 그 자손들이 자리 잡고 살기 시작 하였다. 은진 고을 갈산에 강효자의 사우가 있는데, 공은 고향에 서 제사지낼 곳이 없으므로 사방에서 공론이 일어 이 사우에 병향 하고, 배향한지 백여년이 지난 뒤에 추배한 자리를 옮겨야 한다는 의논이 있어 크게 미안하였다. 얼마 후에 선비들이 모두 말하기를 공이 율곡에 오래 살았으니 단독 사당을 여기에 세우는 것이 마땅 하다 하여, 많은 선비들과 후손들이 드디어 사당을 짓고 옮겨 모 시었다. 사우 마당가에 두 그루의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어 녹음이 섬들을 덮고 솔솔 바람이 추녀를 두드리니, 공이 이곳을 거닐던 옛일을 상상하며 사우의 명칭을 행림이라고 하였다.

후손 서문록과 서정훈이 뜰에 비를 세우려고 나에게 비문을 부탁하 니 재주없고 천박한 후생이 어찌 감히 쓰랴만은, 그만 둘 수 없어 삼가 손을 모으고 다시 말하노니 옛말에, 「나무를 보면 산을 알 고, 벼를 보면 어짐을 안다.」 하였으니, 주자가 나신지 오래 되었으나 참다운 선비가 나지 않았더니 석담 이문성공④이 오로지 그 학문의 본체로서 멀리 그 계통을 이어 받았다. 공은 강직한 지조와 경계의 포부를 가지고 일찍부터 구도한 것은, 이문성공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마음으로 기뻐하고, 지성으로 감복하였기 때문 이다. 육진에 봉직할 때 율곡이 병이 위중한데도 구두로 진을 지 키는 방도를 전수 받아, 돌아와서 조목조목 편리하고 마땅하게 상주했으나, 율곡께서 돌아가니 의논이 마침내 행하여지지 못하 였다. 그 뒤에 중봉 선생이 상소하여 탄식하며 슬퍼하였다. 또

萬竹徐先生廟庭碑

夫觀人之行或有事功之各殊而當究用心之所同尼之思見好仁惡不仁者如顏子之和仲由之剛宜若夜圓之不相入而惡之則可以至於好故所以好惡之并稱也當我穆陵之世果谷先生以東西黨議之相軋至誠調停欲圖保合者即好仁之端也公在義州與舒川時疏斥汝立之反覆以辨栗松諸賢之受誣挺身歷血不避幽燭者即惡不仁之心也好惡之跡雖若不侔而憫時清弊欲扶國事之日非其忠愛惻隱之心與栗翁同條也觀其近節未萌之時直斥不諱終符先見其氣節之凜烈尤為難能而未克展施素蘊於聖世休明之際士流之恨至今未沫者也公不樂在朝斂其浩氣即為退居于高山愛其山水清佳種竹萬竿以自節置一亭而臨之曰心杖傳遊息詩以爲樂遠近學子多就講業因尊稱曰萬竹先生世祖朝公之五世祖諱貞壽諱于思津子孫自家馬嶽之高山有孝子而四方會議皆謂公於梓鄉不可無尸祝始舉并侑於是祠舉為百餘年之久後有進配位次變改之議大為未安既而士林咸以爲公於六谷亦為舊居宜其如乎祠於此多士與後孫遂建祠而移奉庭畔有老杏二株綠陰覆地繞軒可以想公昔日之逍遙其間則所以杏林揭稱者也後孫文祿廷數今將立碑於庭屬不備以記謏後生何敢述焉然無已則謹撰手而後之曰昔語云見木知山親友知賢蓋自朱子之世遠而真儒不作石潭李文成公以專體之學迄承其緒公以剛直之操經濟之具早歲求道盡聞文成之說心悅誠服奉使六鎮東谷蔡華口授方畧公還朝条上便宜而果谷已卒議竟不行後重峯上疏悼公又與江從遊磨龍書後深厚其言論勸使後人激仰歎賞而不能遇沒灌於師友道義之力有不可誣也公諱益字君受其先百濟王孫國亡避于唐賜姓氏因貫以扶餘廿三中司馬未幾擢第而歷更兵曹佐郎弘文校書政府舍人外則舒川安東義州也

崇禎四周丁卯季夏 立

資憲大夫司憲府大司憲萬成均館外酒 經筵官恩津宋來應謹撰
嘉善大夫禮曹參判兼同知經筵義禁府春秋館成均館中教習校尉提學知製教士李士琦同

(음기)

만죽 서선생 묘정비

(전면)



만죽 서선생 묘정비

7. 만죽 서선생 묘정비

소재지 | 논산시 가야곡면 육곡리

연월일 | 서기 1867년(고종 4년, 정묘)

찬자 | 송래희

서자 | 이호준

비신 높이 | 161cm

폭 | 62cm

두께 | 30cm

자경 | 3cm

전면 | 15cm

석질 | 대리석

서익 선생은 자가 군수이고 부여인이고 아호는 만죽이다. 선생의 5세조 서정수가 귀양을 온진으로 오면서부터 그 자손들이 세거하기 시작하였다. 만죽 선생의 사위가 육곡에 세워지고 은행 고목이 있어 행림이라고 불렀다.

선생은 조정에 머물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고산으로 낙향하여 산과 물을 사랑하여 주위에 일만 그루의 대나무를 심고 후학들을 가르쳤다. 세심정을 짓고 머물면서 강론하니 원근에서 찾아와 「만죽선생」이라고 부르며 존경하였다. 후일에 선생의 후손서 문록이 1867년 묘정에 비를 세우니 이것이 「만죽 서선생 묘정비」이다. 대리석 비신에 팔작 지붕 모양의 가첨석을 얹고 농대석을 갖추고 있다.

비문은 송래희가 짓고 글씨는 이호준이 썼다.